



# 비자나무



최 명 섭  
임업연구원

과명 : 주목과  
 학명 : *Torreya nucifera* Sieb. et Zucc.  
 영명 : Torreya, Japanese Stinking Ceder  
 한명 : 榧子木  
 일명 : かやのき

비자나무는 자생북한계지가 전라남도 장성군의 백양산(白羊山)비자림으로 지정되어있는 남쪽에 자라는 상록침엽수지만 어릴 때 보호만 잘하면 서울에서도 자랄 수 있는 비교적 내한성이 강한 수종으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임업연구원 흥릉수목원내에서도 잘 자라고



비자나무 전경▶



▲비자나무 수피



비자나무 잎과 열매▶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자나무는 천연기념물 39호로 지정된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의 『병영면의 비자나무』로 높이가 10m, 흉고둘레가 5.2m로 수령은 4백년이라고도 하고 8백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조대종 17년에 전라도 병마절제사영을 이곳으로 정했을 때 재목으로 쓸만한 나무는 모조리 베어서 사용했으나 이나무는 굽어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나무만이 남게 되었다고 하고 또는 이조 5백년간 진수부(鎭守府)로 내려오는 동안 (갑오동란으로 동학군에 함락되어 폐영될때까지) 많은 병사들의 회충구제약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호되어 온것이라는 두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 1. 생태적 특성

전라도의 백양산과 내장산에 자생하고 제주도에 대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수고 25m, 직경 2m까지 자라는 상록침엽교목으로 표고 150~700m에 분포하며 일본에는 매우 넓은 면적에 자생한다. 내한성은 보통으로 중부지방에서도 월동되며 토심이 깊고 비옥 적윤한 사질양토에서 생장이 왕성하나 건조 척박한 곳에서는 불량하다. 그늘에서도 잘 견디고 내조성, 대기오염에도 강하나 생장이 매우 느린 특성을 지닌다.

### 2. 형태적 특성

줄기와 수피는 홍갈색이며 주간이 곧게 올라간다. 잎은 길이 2.5cm, 넓이 3mm의 침형이며 선형 예첨두로서 뒤쪽 주맥의 양측에 황백색의 기공조선이 있다. 꽃은 자웅이화로서 4월에 피며 수꽃은 한 화경에 10여개의 꽃이 달리나 암꽃은 한군데에 2~3개씩 달린다. 비자는 길이 2.5~2.8cm 넓이 2cm 정도의 핵과(核果)모양이고 겉껍질은 육지의 종의로 싸여 있으며 다음해 9~10월에 자갈색(紫褐色)으로 익는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상록의 잎과 웅장하고 품위 있는 나무의 자태는 엄숙함을 주며 공원수나 기념수로 심기에 훌륭한 나무이다. 겨울철 녹색수목이 부족한 중부지방에 식재하면 늘푸른 경관구성에 도움을 주며 내염성이 강하여 서해안 해변 조경에 사용해도 좋으며 맹아력이 강하여 수형조절이 용이하고 큰나무 아래에서도 잘 견디므로 식재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 4. 번식법

보통 종자번식에 의하나 꺾꽂이도 가능하다.

- 종자번식 : 3~4년에 한번씩 풍흉이 나타나므로 종자채취에 유의해야 하며 종자가 조금만 건조해도 휴면에 들어가므로 성숙되기 시작하면 미리

흔들어 떨어뜨려 외종피가 붙은 것만을 수집하여 겉껍질을 벗긴다. 파종은 직파를 하며 정선한후 바로 파종한다. 봄파종은 3월에 하고 파종량은 m<sup>2</sup>당 470립 정도로하고 점파한다. 발아되기 시작하면 비음을 설치하여야 우량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 삼목번식 : 온실에서 깨끗한 마사토를 이용해서 발근 촉진제 처리와 미스트장치가 설치된곳이라야 활착을 높일 수 있으며 온실이 아닌 노지에서 활착이 어렵다.

### 5. 그 밖의 용도

열매는 구충제(촌충)로 사용하고 특별히 요리하여 술안주, 강정을 만들기도 한다. 겉껍질과 속껍질을 벗긴후 꿀이나 엿에골려 문혀서 콩가루를 입힌 비자강정이란 별미의 민속과자로 만들었으며 기름을 짜서 식용, 등유용, 머릿기름 등 최고급양질의 식물성 기름으로 이용한다.

비자나무의 재질이 치밀하고 광택이 있으며 향기로울뿐 아니라 무늬가 비단같이 아름다워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최고로 친다. 물속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하여 관재나 배를 만드는 용재로 이름나 있다.

### 조경수